

까사미아, 27일까지 '슬기로운 집콕생활' 프로모션

까사미아가 27일까지 '슬기로운 집콕생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웨딩 클럽에 가입한 신혼부부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상 구매 시 각각 10, 15, 20%의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토페인, 몬타나 등 인기 소파를 최대 40%, 티 테이블, 식탁 등 리빙 가구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정정욱 기자



비즈 프리즘 | 광복절 연휴 맞아 초특가 행사 펼치는 대형마트 업계

“올 여름 마지막 황금연휴를 잡아라!”

사라진 바캉스 특수...실적 방어 총력
홈플러스, 4900여개 상품 최대 50% 할인
이마트도 먹거리 등 특가판매 진행

대형마트 업계가 15~17일 광복절 황금연휴를 맞아 초특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소비가 위축된 데다 8월까지 이어진 장마로 바캉스 특수마저 날아가자 이번 연휴를 여름 실적 방어의 마지막 선전으로 삼고 내수 회복 총력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17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홈플러스5일장'을 열

고 4900여 개 상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백숙용 토종닭과 복숭아를 2000~3000원 싸게 내놓는다. 멸균우유, 아이스크림, 냉동만두 등의 원플러스원(1+1) 행사도 연다. 오프라인 점포 활성화를 위해 14~16일 매장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상품권도 증정한다.

롯데마트는 15~17일 먹거리와 생활 용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통큰절' 행사를 연다. 옐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항공 직송한 닭스터 1마리를 행사 카드 사용 시 1만 원 이하로, 15일 캠페인도, 16일 제주 하우스 감귤을 반값에 선보인다. 또 과자·시리얼, 통조림, 화장지, 섬유유연제 등을 1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마트도 19일까지 먹거리와 생활용



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한우 전 품목을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하고 삼겹살·목심 7대 브랜드 균일가전도 연다. 15일 말복을 맞아 행사카드 사용 시 토종닭을 30%, 씨 없는 수박을 2000원 할인 판매한다.

김웅 홈플러스 상품부문장은 "황금연휴 기간 동안 고객의 물가 걱정을 덜어 주고 생산 농가와 제조사 매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대규모 행사를 마련했다"며 "내수 경기 회복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행사를 지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대형마트 업계가 광복절 황금연휴를 맞아 내수 회복을 위한 초특가 할인 행사를 연다. 홈플러스 서울 강서점에서 '홈플러스5일장' 행사를 알리고 있는 모델들. 사진제공 | 홈플러스

‘실종아동찾기’에 힘보태는 편의점 업계

이마트24, 매장 스크린 통해 정보 노출
세븐일레븐은 도시락에 이동 사진 부착

편의점 업계가 실종아동찾기 활동에 힘을 보탠다. 전국 단위 점포망을 갖춘 만큼 공익 활동 공간으로 최적이라는 평가다. 이마트24는 경찰청과 손잡고 7월부터

실종아동찾기 활동을 진행 중이다. 전국 4800여 개 점포 계산대 모니터와 756개 점포에 설치된 디지털사인지를 통해 실종아동의 사진과 정보를 노출한다. 계산대 모니터와 계산대 상단에 위치한 디지털 사인지는 매장 내 고객 체류 시간이 가장 길어 실종아동찾기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세븐일레븐도 실종아동전문센터인 아동 권리보장원과 함께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에 나섰다. 12일부터 '11찬도시락', '한돈대파구이' 등 인기 도시락 상품에 실종아동 사진과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다. 최유미 세븐일레븐 푸드팀장은 "실종아동 정보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스티커 부착 품목 수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편의점 상품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이마트24 디지털사인지를 통해 노출하는 실종아동 정보. 사진제공 | 이마트24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17일부터 배송 재개

28년만의 첫 휴무...택배사 대거 참여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에 맞춰 14~16일 국내 택배가 일괄 중단되고 17일부터 순차 배송이 이뤄진다.

전국 택배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는 14일을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정해 휴무한다. 강제 사항이 아니라 회사별 사정에 따라 참여하도록 한 만큼 모든 택배사가 다 쉬는 것은 아니다. 휴무하는 택배사는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등 대형 택배사들로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80% 정도다. 우정사업본부 소포위탁배달원도 동참한다.

1992년 한국에 택배 서비스가 도입된 이

후 28년 만의 전국 단위 휴무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제대로 된 휴가를 누리지 못했다. 택배기사는 물론 택배 분류와 집하, 택배 터미널 간 수송 차량 운영, 지역별 상하차 인력을 공급하는 도급 업무 등이 모두 중단된다.

택배사들은 17일 물량이 몰릴 것으로 보고 거래업체에 배송 분산을 요청한 상태다. 단 분산 요청에도 물량이 몰리면 명절 때처럼 순차 배송한다. 먼저 주문이 들어온 상품부터 배송하고 뒤에 들어온 상품은 지연 배송되는 식이다. '택배 없는 날'이 이미 예고된 이벤트인 만큼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게 택배업계의 설명이다. 정정욱 기자



“방탄소년단, 빛나는 가을 패션” 힐라 글로벌 모델 방탄소년단이 '2020 가을 컬렉션'을 통해 감각적인 가을 패션을 선보였다. 특유의 남성미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뽀빠이 플러스 재킷', '팔레트 보아 플러스 재킷', '뉴트로 바스티 맨투맨' 등 다채로운 가을 패션 스타일을 제안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힐라

교육

에듀윌

주택관리사 2차시험 내달 19일 실시

상대평가 전환된 주택관리사 시험...확실한 전략은?

올해 제23회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이 9월 19일 시행된다. 이번 시험은 상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많은 수험생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대평가는 선발 예정인원을 정해두고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제23회 주택관리사 시험의 선발인원은 1700명이다. 지난해 시험에서 4101명이 최종 합격한 것과 비교하면 인원이 크게 줄어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고 빠르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 교육기업 에듀윌은 2021년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는 수험생을 위해 최신 개정사항을 전격 반영한 '입문 특강 0원'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입문 특강 0원 이벤트는 주택관리사 시험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 이론 완성, 실전 연습, 최종 점검의 세 단계를 거쳐 탄탄한 기초실력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1차 시험의 민법, 회계원리, 시설개론 3개 과목에 대해 과목별 10강씩, 총 30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듀윌 관계자는 “공부방법과 학습포인트를 빠르게 잡고 싶은 수험생이나 에듀윌 전문 교수진의 강의를 경험하고픈 수험생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며 “하루 2시간씩, 15일 만에 기초 실력을 다지고 내년 시험에서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공개되는 2021 주택

관리사 입문특강은 에듀윌 회원이면 누구나 7일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PDF 교안도 100% 무료로 제공된다.

